

2021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광주지역 가채점 결과 분석

국어 91점, 수학(가) 88점, 수학(나) 96점 '1등급'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8일 실시한 2021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분석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이 광주지역 고등학교 6월 모의평가 가채점 접수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 '국어, 수학(나), 사탐' 응시자는 작년보다 1,024명이 감소한 5,519명이다.

자연계열에서 '국어, 수학(가), 과탐' 응시자는 작년보다 469명이 감소한 4,816명, '국어, 수학(나), 과탐' 응시자는 작년보다 391명이 감소한 805명이 응시했다.

따라서 평소 '수학(가)'에 학습부담을 느끼고 등급향상에 어려움이 크다면 '수학(나)'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대입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모의평가 출제 난이도는 '수학(가)'와 '지구과학 1'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어'는 독서지문이 까다롭지 않아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이했다.

'영어'는 1등급에 해당하는 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작년 수능 7.43%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듣기평가에서 일부 유형의 문항 배치 순서가 바뀌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수학(가)'는 작년 수능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됐고, '기하와벡터'가 출제범위에서 제외되면서 '확률과 통계'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지구과학 1'은 상당히 어렵게 출제돼 실채점 결과가 발표되면 표준점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탐구 II'는 평이하게 출제돼 원점수 총점은 작년 수능에 비해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 재학생들의 가채점 분석 결과, 과목별 1등급은 국어 91점, 수학(가) 88점, 수학(나) 96점으로 예측된다.

이번 모의평가 결과는 오는 7월9일 수

험생에게 통보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수가 표기된다.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한국사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수만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광주시교육청은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분석설명회를 오는 29일 19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채점 결과와 점수를 분석해 오는 7월16일 19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진학부장을 대상으로 결과분석설명회를 진행한다. 또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6월 모의평가 분석자료를 광주시교육청 유튜브, 광주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빛고를 꿈꾸리 진로진학 상담 밴드에 오는 7월16일 온라인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의 분석: 국·수·탐 원점수 300점 기준】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291점 이상, 자연계열 268점 이상 되어야 지원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기준(서로 다른 과탐 I+II, II+II 조합)에 충족한 학생들 표본에 의한 자료이다.

•고려대/연세대: 인문계열 282점 내외, 자연계열 267점 정도가 지원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가능 점수는 268점, 광주교육대학교는 인문계열 255점, 자연계열 244점 정도에서 지원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250점, 국어교육과 247점, 행정학과 244점, 경영학부는 239점, 정치외교학과 228점, 국어국문학과 223점,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210점 내외로 판단된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282점, 치의학과 276점, 수의예과 267점, 전기공학과 252점, 수학교육과 236점, 간호학과 226점, 수학과 225점, 자

연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수학(가) 지정학과 207점, 수학(가/나) 학과는 196점 내외에서 지원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209점, 국어교육과 203점,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135점 내외로 판단된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280점, 치의예과 274점, 간호학과 221점, 수학교육과 204점, 기계공학과 170점, 자연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136점 내외로 판단된다.

* [유의사항] 배치기준 자료의 학과 및 배치군은 2021학년도 전형 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정시전형 확정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단순 지원가능 기준 점수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또한 위 배치기준 점수는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국·수·탐 원점수 300점 기준이므로 영어 등급점수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채점 분석자료가 나오면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해 유·불리 정도를 판단해 대입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남교육청,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115팀 추가 선발

2020학년도 483팀 선발 완료
팀당 최대 500만원 지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온 '2020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선발을 최종 마무리짓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전라남도교육청은 6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사흘 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0학년도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추가 참가팀 선발 심사를 진행하고 115팀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추가 참가팀 선발은 올해 신입생으로 입학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차 선발 심사와 동일하게 비대면 심사로 이뤄졌으며, 서류심사 70%, 동영상 30%



전남교육청, 2020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심사 현장 사진

비율을 적용하여 선발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2019년 우수활동팀 29팀, 국외팀 운영 취소로 인한 국내 전환팀 22팀, 지난 4월 선발한 1차 368팀을 포함해 2020년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에 참가할 483팀을 최종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1차 선발팀에 대해 17억여 원을 해당 학교로 교부했고, 이번 추가 선발팀에 대한 활동비는 6월 중 5억여 원을 추가 교부해 팀별 최대 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목포대 LINC+사업단, 미니클러스터 세라믹산업분과 세미나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단, 단장 이상찬)은 지난 6월 18일(목)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 산업 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전라남도, 목포시, 세라믹 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라믹산업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광주·전남 세라믹 산업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세라믹 산업

발전을 위한 세라믹센터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 사업들이 소개됐고, 세라믹 산업분과 미니클러스터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세라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대표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등 많은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호남대, EPIS '식품명인 대물림 공모사업' 선정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이 공모한 '2020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대물림 프로젝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돼 사업비 5천 만원을 지원받아 교육생을 모집한다.

'식품명인과 함께하는 대물림 프로젝트'는 식품 전문분야 숙련기술인의 기술과 노하우를 예비창업자나 기창업자들에게 전수해 전문 식품기술의 계승발전과 식품산업분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남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 사업자로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최하고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사업은,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 교수팀(학과장 김영국, 책임교수 송기희)을 중심으로 6월 30일부터 9월30일까지 떡·발효음식·궁중관죽·음청류 등 4개분야로 특화해 현대 디저트 시장에 진입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 강사진은 오희숙 부각명인, 사찰음식전문가 정관스님, 광주시무형문화재 17호 최영자·민경숙, 박해란 김치명인, 궁중음식연구원 출신 명인들의 기술전수와 창업교육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3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9월 17



일까지 4개월간 명인들의 실기수업과 창업 멘토링으로 주 2회, 총 15회에 걸쳐 호남대학교와 명인 작업실 등지에서 진행된다. 특히 백양사 천진암 주지인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현장탐방은 음식철학 특강과 한식 다이닝 실습이 예정돼 있다.

신청자격은 청년(39세 이하), 40대 또는 5년 이내 기창업자 20명으로, 수강생들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이 부여된다. 원서는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 홈페이지 '학과공지'란에서 교육신청서 등을 작성해 오는 26일까지 이메일(gosunah1031@naver.com)이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